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응답하라 1560! 호남에서 가장 HOT했던 래퍼들.		
활동목표	- 식영정의 한시를 해석해보고 현대의 감성에 비춰본다. - 식영정의 주인 임억령에 대해 알아본다.		
해설주제	식영정의 시 문학과 임억령	대상	14~18세 중·고등학생
해설재료	시조 해석 시각자료	소요시간	8‘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인사 및 주의사항	- 소개 및 안전관련 주의사항 안내	0.5‘	뮤직 플레이어 (핸드폰, 타블렛 등)
주제별 해설	도입	- 그림자도 쉬어가는 곳, 식영정의 준공 배경과 그 주인 임억령에 대하여. (feat. 을사사화)	2‘	
	전개	- 시조 해석 및 현대 랩 음악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3‘	시조 해석 시각자료
정리	마무리	- 정자의 이름과 그 유래 - 현대인의 감성으로 접근하는 시조문학	2.5‘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응답하라 1560! 호남에서 가장 HOT했던 래퍼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 및 주의사항	(랩퍼 염따의 돈 콜미 전주가 흐른다. 비트에 맞춰 몸을 두둠칫 움직여본다) 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아무개입니다. 현재 앉아계신 곳은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구요, 혹시 해설 도중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전개	들으신 노래는 3일만에 6천만원을 번 한 래퍼의 히트곡입니다. 가사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나 돈 많으니까 돈없으면 전화하지마. 나 잘났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현대 힙합 음악은 자신을 과시하는데 이를 '허슬'이라고 합니다. 속어죠. 16세기 조선에도 이런 허슬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지금 래퍼들의 차이점은 무엇을 과시하느냐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닌 '선비 정신. 청렴하고 고고함'을 자랑했죠. 그 외엔 유사점이 많습니다. 거문고와 비파, 장구를 이용해 비트를 만들고 한자어를 멜로디 없이 그 위에 얹었다는 점. 또한 라임을 중시했다는 점. 처음에 들려드린 노래도 '돈콜미, 금은콤비, 롤리롤리' 유사한 라임 속에 자기 과시가 익살스럽게 녹아있습니다. 라임은 당시의 한시에선 압운이라 부르며 킬링 파트로 생각했습니다. 이론보다 먼저 시를 한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溪邊沙皎皎, 沙上鴨娟娟. 海客忘機久, 松間相對眠. 계변사교교 사상압연연 해객망기구 송객상대면 (시각 자료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1구와 2구의 끝 운이 반복되고, 2구와 4구의 끝 글자가 같은 계통의 모음이죠? 이런 게 압운입니다. 특히 2구와 4구의 끝 글자는 반드시 유사한 발음이어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음의 유사성에서 그치지 않고 의미 또한 그럴듯해야 엄지척,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한시를 간단히 해석해드리자면, (첫 행을 가리키며) 교교, 희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데 (둘째 행 가리키며) 연연, 그 위의 오리 또한 아주 아름답다. 그러니 그게 자신의 고고한 선비정신과 닮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시 또한 자신의 선비정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다고 과시하는 선비는 석천 임억령. 호남에서 가장 핫한 랩스타 중 하나였습니다. 30세에 급제해 금산군수로 일하던 중 동생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다른 선비 수십을 옥에 가두고 숨지게 하자 부끄러운 마음에 낙향합니다. 평생을 바쳐 얻은 관직도 선비정신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 선비정신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이 임억령 외에도 있었는데, 정철, 고경명, 김성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 넷을 이 지역 사람들은 네 명의 신선이라 부르며 부러움 섞인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1560년, 제자이자 사위이면서 같은 크루인 김성원이 이 정자를 지어 임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1496년생인 억령이 64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곳이 지어진 후 당대의 래퍼들, 그러니까 문인들에겐 마치 쇼미더머니 경연장이 생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너도나도 창계천과 성산의 풍경을 시로 읊었고 그 중 80수의 시가 (편액을 가리키며) 이 위에 걸려있습니다.
	김성원이 임억령에게 이 정자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자 억령은 '장자 제물편'의 어리석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림자를 피해 도망치려다 지쳐버린 사내에게 장자는 '그림자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욕망도 그러한 것. 그림자가 쉬어가는 식영세계가 아닌 이상 그저 응달로 들어갈 방법 뿐이니라.'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김성원이 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은 이 정자가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응달'인지요?" 억령은 답했습니다. "아무렴. 응달을 넘어 그 그림자도 쉬었다가는 쉴 식, 그림자 영. 신선들도 쉬어가는 식영세계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들은 지금 500년 전 호남의 가장 핫했던 래퍼들의 온 동네 선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무대, 식영정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식영정의 경치를 보며 저마다의 시를 읊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PLAY~!!